아이가 행복한 육아보육도시 조성 앞장

익산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은공부방 사업 공모 선정… 리모델링비 지원 · 2000여 권 도서 확보

익산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인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사업 공모에 선정돼 200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비 지원 및 2000여 권의 도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사회소외 가정 자녀의 사회통합과 학습지원을 목표로 지난 1월 공모계획 발표 후 전국의 유관기관에서 신청했고, 전북에서 익산시가 단독으로 신청해 서면 심사 및 현장실사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익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을 위한 키움뜰 작은 공부방' 사업에 공모하여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으며, 선정을 위해 익산시 모든 관계자들이 직접 공모 사업을 챙기고 직원을 격려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운영계획의 우수성, 추진의지, 사업의 효용성, 실현가능성, 주민체감도 등을 평가했다.

시는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호남 최대의 돌봄 환경을 토대로 수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과 영유아 가족들이 함께 돌봄서비스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켜 심사에 임했다. 또한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높은 수요와 만족도 및 풍부한 돌봄 분야 운영 노하우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경쟁력이 사회소외 가정 자녀의 사회통합과 학습지원이라는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등 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편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지원은 쉼터 위주로 설계된 기존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의 육아카페에 초등학생 및 영유아들을 위한 공부방을 설치해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익산시만의 특화 돌봄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만의 다양한 보육 및 돌봄사업 추진을 통해 육아가 즐겁고, 아이가 행복한 육아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익산시민들 누구나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익산시가 돌봄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4월 1일부로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내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이 집회를 열고 회사 측의 일방적 행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리들을 돈으로 현혹시키려 한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 '억울함 호소'

4월 1일부로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내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이 집회를 열고 회사 측의 일방적 행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2일 장현철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105명의 근로자들은 군산공장 정문 앞에서 해고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들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내 협력업체들의 직원으로 짧게는 7년 길게는 20년 이상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GM과 한국지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했는지 알리며 싸우겠다"고 성토했다.

집회에 나선 해고 근로자 A씨는 "해고 통지서를 받고 지난 한달 동안 우리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힘이 되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파렴치한 한국지엠은 이런저런 소문만 내더니 사직서를 쓰면 4월 27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우리들을 돈으로 현혹시키려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집회를 마친 해고 근로자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방법원에 부당해고, 임금차액부분, 근로자지위 확인에 대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화훼류 식물병원 개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는 미세먼지에 따른 실내 공기정화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 식물을 기르는 도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식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화훼류 치료 병원을 2일 개원해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물병원은 익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859-4978)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화분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심각한 경우는 수개월간 전문치료 및 관리를 통해 회복된 후 접수자에게 회송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창의생활과학교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익산시는 익산시가 지원하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2018년 제2기 창의생활과학교실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의생활과학교실은 과학인재 양성 및 과학친화적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에서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4,51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올해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35명의 학생이 수료했다.

이번 제2기 창의생활과학교실은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모집하며 ▲지진 경보장치 만들기 ▲빙글빙글 간이모터 ▲춤추는 팽돌이 ▲4D 세계로의 여행 ▲내 손 안에 현미경 ▲안티 모기팔찌 만들기 등 10개의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오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10회(매주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박재만 군산시장 예비후보, 해양수산공약 발표

"비응도에 국립 낚시안전연수센터 건립 추진"

박재만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산공약'을 발표하였다.

해양레저 활동 수요의 증가와 함께 낚시인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체험·참여형 낚시연수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낚시문화 확립을 위해 군산시 비응도에 '국립 낚시안전연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낚시인을 군산으로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세수증가는 물론 낚시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예비후보는 "낚시인들은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주장하여 왔다."면서 "즉 전국의 낚시인들이 교육이수를 위해 군산을 방문할 수밖에 없어 군산의 브랜드가치가 상승하고 바다낚시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여 군산이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한 박 예비후보는 김 양식 어업인 피해예방 및 김 양식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조류 저감용 소파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김 양식기반시설'을 고군산 일원에 설치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김 황백화 현상으로 올해 군산지역 김 양식 어가 피해가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군산시와 수협은 추산한 바 있다."면서 "황백화 현상의 정확한 발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대책도 없어 어민들이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라고 공약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전완수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전완수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전 후보, 51)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지난달 31일 오후 3시경 모현동 한사랑헬스 5층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형중 익산을지구당 위원장, 박경철 前 시민연합 상임대표, 황현, 김영배, 정현욱 익산시장 예비후보, 소병홍 익산시의장, (사)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추모기념사업회 중앙회 이사장, 전·현직 도·시의원 및 각계 기관·협회장,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5가지 공약 추진" 약속

전완수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승리를 뜨겁게 응원해 주었다.

전 후보는 "▲인구 30만, 붕괴를 막고 인구증가를 위한 일자리창출▲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육성▲교육중심도시로서의 위상 확보▲익산을 도농상생도시 모델로 추진▲관광벨트 구축과 글로벌 축제문화 개발 등의 5가지 공약을 추진한다"고 약속을 다짐했다.

전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익산의 성공을 전완수가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당원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맞춤형 비료 · 못자리용 상토 지원

군산시는 벼 재배농가의 농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관내 전체 벼 재배 농가에게 권역별 토양에 맞는 맞춤형 비료와 못자리용 상토를 전량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7년 쌀소득보전직불금(변동) 지급 대상자 중 전북도민으로서 시 관내 농지에 벼 재배면적이 1,000㎡ 이상 경작자이다.

올해 지원되는 맞춤형 비료는 '15~17년 3년간 토양검정 평균결과에 의거 맞춤형 비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비료로 총 4종(맞춤15, 16, 27, 28호)이며, 농가 신청에 의해 완효성 비료로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친환경 농사면적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로 공급된다.

모든 비료는 4월 초에 공급이 완료되며, 육묘용 상토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에 계통 등록된 상토 중 대상 농가로부터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신청 받아 15개 업체를 통해 4월 중순에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비료와 상토 공급 시 파렛트를 사용하여 상하차를 실시하고 지게차 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읍면·농협·공급회사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